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 합동회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태풍 피해가 너무 커서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은 훌륭했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니까 감회가 특별합니다. 경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공부하고 활동했습니다. 각별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혼자 짝사랑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서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국정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섭섭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짝사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젠가 재임 중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재임 후라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국가를 위해 잘했다고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